

교회목표

- 1. 천국시민 양성
- 2. 만민에게 전도
- 3. 빈약한 자 구제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요한복음 11장 40절)

순례자

2004년도 표어
보혜사 성령이여 깨끗케 하소서(시51:10)

행동지침

- 1. 바른생활
- 2. 바른교회
- 3. 바른국가

† 발행인 : 이 중 윤 † 발행처 : 대한예수교 장로회 서울교회 서울시 강남구 대치동 210 전화: (02)558-1106 팩스: (02) 558-2107 www. seoulchurch.or.kr

신년 메시지

최상의 선택 (The Best Choice)

사도행전 10:1-8



이중윤 목사(서울교회 담임)

2004년 새해에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화가 서울교회 성도들과 온 민족 사회에 차고 넘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살면서 종종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됩니다. 선택은 인생의 성패를 가름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올해도 우리는 선택해야만 할 일들을 여러 번 맞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뛰어난 지혜와 용감한 결단을 필요로 하는 최상의 선택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디모데는 최상의 선택을 한 사람이었습니다.

디모데는 신앙의 길을 택한 사람입니다. 디모데는 유대인 어머니와 헬라인 아버지 사이에서 태어난 사람으로 인본주의인 헬레니즘의 영향과 신본주의의 헤브라이즘의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을 동시에 가지고 있었습니다. 헬레니즘은 젊은이들의 기호에 맞는 문화였고 무엇보다 당시의 대세가 헬라문화의 영향권 아래 있었으므로 디모데는 헬라 문화를 따라갔을만도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디모데는 믿는 어머니 유니계를 따라 당당하게 하나님 신앙의 길을 선택했습니다. 이것은 실로 뜻밖의 선택이요 아름다운 선택이며 최상의 선택이었습니다.

디모데는 아름다운 덕을 선택한 사람입니다. 성경은 믿음 위에 덕을 쌓으라고 말씀합니다. 디모데는 먼 지방인 루스드라와 가까운 곳인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들에게 두루 칭찬을 받은 사람입니다. 누구도 언어가 경박하고 처사가 미숙하고 행동이 포악한 사람을 칭찬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가까우면 흠이 드러나고 멀면 덕을 끼칠 수가 없으므로 칭찬을 듣는 일은 그리 쉬운 일이 아닙니다. 칭찬을 받는 사람이란 그가 덕을 세웠다는 말과 상통합니다. 그렇다면 모두가 덕을 쌓을 법도 한데 세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믿음이 아무리 좋아도 타인에게 덕을 끼치지 못한다면 그 믿음은 아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동안 우리에게 덕스럽지 못한 것이 있었다면 지금 이 순간 믿음으로 결단하며 새해에는 절제로 믿음에 덕을 쌓으며 하나님과 사람 앞에 칭찬 받은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디모데는 희생의 길을 선택한 사람입니다. 바울을 만나기 전까지 디모데는 루스드라 지방의 부유한 집안에서 유복한 생활을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때를 맞으면서도 전도를 불사하는 사도 바울을 만나고 나서부터 지금까지 살아온 자기의 삶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안락을 위한 길이 아닌 희생하는 길을 선택했습니다. 또한 디모데는 동역자 바울의 처지를 위하여 관용하는 마음으로 기꺼이 할례를 받기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서는 위대한 결단을 한 디모데를 사용하셨습니다. 디모데 한 사람이 덕을 세우고 희생한 까닭에 교회는 믿음이 더욱 굳건해지고 날로 부흥했습니다. 새해에는 불명예스러운 자기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디모데처럼 우리 민족 사회의 구원과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하여 자기를 희생할 줄 아는 희생의 제물, 하나님의 신실한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신년감사예배

오늘 | ||||부예배시, 성찬예식도 가져

우리교회는 2004년 신년 첫 주일이 되는 오늘 주일 예배시간을 신년감사예배로 정하고 성찬예식을 거행한다. 지난 일년을 돌아보면 은혜 중에 이루어지지 않은 일이 하나도 없음을 고백할 수 밖에 없다.

이제 모든 성도들은 신년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로 출발하여 올 한 해도 주님의 사랑안에서 항상 승리하며 은혜충만한 2004년이 되기를 소망한다.

2004년 성경통독사경회

1월 22일(목) 오전 8시 - 1월 23일(금) 12:00 양일간

우리교회는 이 나라의 백성들이 조상 송배를 통해 하나님 앞에서 민족적으로 죄를 짓는 설 연휴를 맞이하여 민족을 위한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도록 교회를 세우신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여 항상 성경통독사경회를 설 연휴 기간 중에 개최하고 있다.

올해도 1월 21일(수)부터 23일(금)까지 3일간 설 연휴를 맞아 이 기간 중 우리교회는 22일(목) 오전 8시부터 23일(금) 오전까지 양일간 성경통독사경회를 열기로 하였다.

올해 성경통독사경회의 본문은 신약 전체(4복음서, 사

도행전, 바울서신, 히브리서, 공동서신, 요한계시록)이며 진행은 전임교역자들이 담당하여 매 교시 담당 4명의 교역자가 1장씩 번갈아 가며 낭독하고 참석한 성도들은 귀로 들으며 눈으로 성경을 따라 읽는다. 새로운 장을 시작할 때는 전체가 "OO장"이라고 힘차게 외치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으며 "아멘"이라고 외친다. 성경을 읽으며 색연필로 줄을 치며 읽거나 은혜 받은 부분을 표시하며 읽으면 더욱 좋다.

금번 성경통독사경회 참가비는 10,000원이며 사무국에서 접수한다.

2004년 청지기 수련회

-내일 새벽부터-

우리교회 청지기들이 이번 주간 새벽마다 함께 기도하고 말씀과 특강을 통해 훈련과 각오를 다지는 청지기 수련회를 갖는다.

새벽 5시부터 새벽기도회, 5시 40분부터 6시 20분까지 예배위원, 찬양대원-(월), 교사-(화), 전도회임원-(수), 교구일꾼-(목), 기타 섬김위원-(금), 향촌직-(토) 순으로 훈련 프로그램이 정해졌다.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는 청지기들이여 일어나 새벽을 깨우며 달려오기를 바란다.

2003년 12월 등록

새가족 환영회

오늘 찬양예배시간에

강일선 강지연 강진환 강혜연 공을남 권상원 권세라 권수연 권철오 김고은 김범중 김삼연 김성일 김세환 김소연 김예찬 김용언 김유경 김윤영 김정하 김지연 김지용 김진우 김참소망 김창희 김천에 김태영 김희경 노미숙 노승원 박덕호 박 별 박영숙 박익순 박재형 박지은 배기전 백영희 변은영 서대식 소순영 시지선 시평수 신동우 안광현 안세람 안치훈 양정실 염인호 온영애 유경애 유선희 윤효철 윤희권 이갑수 이명주 이세은 이순준 아원규 이유진 이주복 이준호 이해란 이화영 임성훈 임세희 정애신 정유전 조병광 조수강 조연복 지병진 진영민 진영희 최가연 최영수 최정수 최지수 최현덕 최희숙 한가형 한정옥 허 백이상 83명

평신도 신앙강좌(II) 개강

오늘 12시 30분 603호실에서

평신도 신앙강좌(II)가 본 교회 협동목사로 계신 김재진 목사를 강사로 모신 가운데 성경에 나타난 인간을 주제로 오늘 12시 30분 603호실에서 개강한다.

하남님께서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사랑하신 인간은 누구인가? 성경에서 증언하고 있는 인간을 공부하기 원하는 성도들의 많은 참여를 기다린다.

평신도 신앙강좌(II)는 매주일 오후 12시 30분부터 1시 30분까지 한 시간씩 계속된다.

디아스포라반 개강

오늘 오후 1시 607호실에서

북한을 떠나 조국의 품에 안긴 디아스포라(흩어진 유대인)들이 오늘 오후 1시에 607호에서 개강한다.

많은 성도들의 격려가 있기를 바란다.

2004년도 서울 강남노회

신년 제직수련회

1월 12일(월) 오전 10시 본당

우리교회가 속한 서울강남노회 신년 제직수련회가 오는 12일(월) 우리교회 본당에서 홍성개 목사(동도교회)를 강사로 모시고 열린다.

금년 서울강남노회 제직수련회의 주제는 "선한일꾼의 헌신과 자세" (벧전4:7)이다.

[부예배]지휘자 초빙



최현일 선생

- 1956년 생
- 1983년 연세대 교회음악과 졸업
- 1989년 독일 부퍼탈 국립 음대 졸업(Diplom 취득)
- 1992년 쾰른 국립음대 최고연주자 과정 졸업 (Konzertexamen 취득)

· 현 현일장신대 교회음악과 부교수

1월 중 행사계획표

- 1.4(주): 신년감사예배 · 성찬식 · 공동의회(3부예배후) · 순결서약식(찬양예배)
- 1.5(월) ~ 10(토): 청지기수련회
- 1.12(월): 강남노회제직수련회
- 1.22(목) ~ 23(금): 성경통독사경회



▶ 2004년도 성도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길 기도합니다. - 당회원일동

송구영신(送舊迎新)예배

서운의 영광이



▶ 촌극의 MC 강석우 집사



▶ 윤보람군과 민시리양의 결혼식-당회팀



▶ 부풍의 힘-창으로 전도하는 마리아팀



▶ 서울교회 성도들이 새해



▶ 은빛찬양대-새해의 꿈을 노래하다



▶ 부목사님들의 미션일

묵은 죄를 회개하고 새로운 결심을 다지는 3천여 명의 기도가 이어지는 동안 새해를 맞이하는 웅장한 소리와 희망의 2004년을 밝히는 촛불이 예배당을 가득 채우며 서울교회 송구영신 예배가 시작됐다. 대양 같은 모습으로 굴러가는 시간의 흐름을 끊어 때를 따라 자신을 돌아보고 희망을 북돋아주는 시간을 마련해 주시는 하나님의 섭리에 성도들은 가슴 깊이 감사와 찬양을 드렸다.

이종윤 목사는 사도행전 16장 말씀으로 "최상의 선택"이란 제목의 신년 메시지를 선포했고, 이어 한국교회와 서울교회, 민족과 국가, 세계선교, 청소년과 어린이, 새해 새

출발을 위한 기도 등 제목을 붙인 각종 기도가 잇따랐다. 예배에 앞서 밤 10시부터는 어린아이부터 어른까지 모두 참여한 촌극대회가 열렸다. 한해를 마감하면서 우울함으로만 보낼 것이 아니라 즐거움과 감사로 보내자는 취지에서 서울교회 창립 이래 처음으로 가진 촌극대회였다.

가장 먼저 초등부 31명의 또랑또랑한 어린이들이 경쾌한 노래 소리로 촌극대회는 시작되었다. 촌극대회인 만큼 연가하시는 강석우 집사가 사회를 보았고 이규경 목사, 김광신 장로, 신동기 권사, 강석우 집사 등 4명이 심사위원을 맡았다. 3박4일 동안 합숙훈련까지 했으며 너스레를 떠는

심사위원들은 심사의 기준으로 대본과 연기, 의상, 소품, 반응 등을 제시했다.

고등부의 촌극 제목은 <2004?>. 성경 읽기도, 기도도, 전도도 열심히 하겠다던 연초의 계획이 시간이 지나면서 주변 유혹에 흔들려 결국은 엉망이 되는 일이 해마다 반복되는 모습을 보여주며 새해에는 이런 악순환을 끊고 달라져기를 각오하는 모습을 그렸다.

이어 대학부의 <행복을 파는 가게>는 사람들이 크고 작은 행복을 사가는 어느 가게 이야기로 시작했다. 아파트부터 국회의원 당선까지 갖가지 자기가 생각하는 '행복'을

빛나는 아침



▶ 빛나는 위대한 순간



▶ 새해를 말씀으로 열다- 최상의 선택



▶ 새해의 소망을 촛불로 밝히는 청년부



▶ 써를 대변신



▶ 지난 시간을 자복하며 새해를 결단하는 기도의 손

받아가지만 이런 행복은 끝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영원한 행복을 갈구한다. 이때 가계주인은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바치면 누구나 가질 수 있는 '주님의 구원'을 제시하면서 극을 맺는다.

청년부는 <맛 잃은 소금>이란 제목의 복음성가를 울동과 함께 불렀다. 맛을 잃은 소금 같은 현실을 참회하고, 참 소금이 되겠다고 고백하는 경쾌한 복음성가였다.

당회팀의 <윤보람군과 민사라양의 결혼식>은 신랑신부로 분장한 윤찬오, 민순구 장로님 커플의 해학 넘치는 결혼식으로 꾸며졌다. 가발 쓴 신랑과 곱게 한복을 차려입은

신부가 등장하고 이종윤 목사님을 흉내 낸 주례의 유머까지 얹어져 성도들은 시종일관 웃음을 참지 못했다.

교역자팀의 <송구영신>은 긴 검정코트에 선글라스, 거기에 검은 증절모까지 쓰고 첩보영화에 나오는 비밀요원처럼 등장해 죄종의 폭소를 자아냈다. 두리번대며 강단을 올라가 가슴에 한 글자씩 붙은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를 보이자, 그 촌철살인의 재치에 박수가 터져 나왔다.

마리아 팀의 <전도>는 실감나는 연기로 심사위원의 극찬을 받았다. 70인 전도대원이 붙들면 "절 가요 안 믿어요"라고 매몰차게 가거나 술 마시고 시비를 걸거나 부동

산 계약해야한다며 "바빠요!"라고 소리치지만, 전도대의 찬양 한 곡조에 모두 덩실덩실 춤을 추며 함께 교회로 간다는 이상적인 마무리였다.

마지막으로 은빛찬양대는 색색 고운 한복을 우아하게 차려입고 주님께 두 손 모아 찬양하며 춘극대회의 마무리를 지었다. 은빛 권사님들은 많은 세월을 주님과 함께 살아오신 연륜으로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찬양으로 새해를 기다리는 서울교회 성도들의 마음을 감화시켰다.

글: 김민철, 고은실 사진: 정동호, 오주명(편집부)

2004년을 맞이하며

사랑할 수 있다고 믿었는데..



김광신 장로(12교구, 당회서기)

갑자기 숨고 싶어진다. 아무도 만나고 싶지 않고 부끄러움과 죄송함마저 찾아와 어쩔줄을 모르겠다. 왜냐하면 작년 한해의 목표가 무너졌고 산산조

각이 났기 때문이다.

한해의 설계가 너무 거창했거나 막연했거나 못 오를 나무는 아니라고 믿었는데 지나고 보니 자만심이었고 교만이였다. 누구나 사랑하고 끝까지 사랑하고 미워도 사랑하고 가난한 자와 병든 자를 더 사랑하고 그래서 나는 언제나 사랑을 먹고 살고, 주고 살고, 누리며 살고 싶어서 한해의 표어를 "사랑 제조 공장"이라고 감히 정했는데 말이다.

사랑에 눈 뜨고 사랑 밖에 몰랐고 사랑처럼 아름답고 위대한 것이 없다고 소리치며 살리라 결심했다. 지금 와서 생각하면 사랑에 미숙했고 사랑에 미달이고 사랑에 미완성이고 어린이가 수줍어서 부끄럽기 그 지 없게 되었으니 이 노릇을 어찌하면 좋을까. 내가 인도의 테레사 수녀에는 못 미칠지라도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만큼 받은 자가 없다고 믿었기에 내 속에도 어느 만큼의 사랑은 있으리라 자신했고 그래서 그것만이라도 나누어 주려고 결심한 것이었는데 결과는 참패였고

실망이고 산아 나를 가리워라이다. 고통 받는 자가 내 곁에 있으면 피하고 싶었고 가난한 자가 나를 찾거나 가까이 오려고 하면 떨서와 냉대를 보이기 선수였으며 병든 자의 아픔에 동참하기란 더욱 남의 일 같았다.

내가 먼저 배불러야 하고 내가 편안해야 하고 내게 모자람이 없는가에 더 큰 관심을 두어야 했기 때문에 이웃을 위한 사랑은 명목상으로 끝났고 시늉만 내는 것으로 만족했다. 그리고 나누어 줄 수 있는 사랑은 부스럭기 밖에 없었으며 그것만으로 자랑하고 싶었다.

정말 내 속에 있는 사랑은 병들었거나 빈혈 증세가 있거나 아담의 피 밖에 없는 것이었는지 모르겠다. 그래서 그 사랑을 잡으려면 도망가고 내 것을 삼으려면 싫어하고 오라고 하면 못마땅해 하고 가까이 있는 것 같으나 멀리 있는 것인지도 모른다.

이제 정신을 차리고 나를 똑바로 쳐다보며 나에게 되물어야 하며 다가오는 2004년은 실패에서 벗어나 좌절에서 해방되며 그리스도의 분량에까지 이르는 일에 다시 한번 나를 던져 보아야 하겠다.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이며 열쇠이고 믿음은 산을 옮길 수 있고 사랑은 죽음 보다 강하기에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도우심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새로운 피조물로 태어나고 싶다. 그리하여 비로소 사랑을 알고 사랑에 살고 사랑을 나누며 사랑을 만지고 사는 행복을 맛보고 싶다.

생명의 말씀을 세워가자!



박성수 장로(3교구)

요즈음 우리나라의 정당 대변인들이 하는 말이나 청와대에서 발표하는 말을 듣고 있노라면 간지(奸智)로 흑세무민하는 악마의 말을 듣는 것 같은 착각이 생길 때가 있다. 아침에 한 말을 저녁에 뒤집고 분명하게 한 말도 그런 말 한 적이 없다고 부인하는 모습을 보고 있노라면 온 나라가 흔들리지 않을 수 없음을 깨닫게 된다.

나라의 어른들이 하는 말을 믿지 못하게 되었다. 말을 그럴 사 하게 둘러대도 참말 같이 거짓말하는 것을 능력이라고 믿는 사회가 되고 있다. 그러니 사람에 대한 믿음이 제대로 설 자리를 잃게 된 것이다.

가정에서는 부부사이에 굳게 다짐한 약속이 지켜지

고 있지 않고 있다. 부부사이만 아니라 부모자녀 사이에도 말이 서는 가경을 찾아보기 어렵게 되었다. 이혼율이 증가하고 가족공동체는 균열되고 있다.

학교나 직장에서도 형편은 아주 비슷하다. 말을 그대로 믿고 따르면 되는 일이 아무 것도 없고 도리어 손해만 보게 되는 것이 일반적 현실이다.

그러나 말은 언제나 번지르하게 하고 있다. 그러니 자연 발달되는 것이 간지(奸智)라고 하겠다.

우리나라가 바로 서는 길은 나라의 어른을 경직하고 바른 말을 하는 사람으로 세우는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처럼 천년이 지난 뒤에도 진실임이 분명한 믿음직스러운 어른을 세우는 것이 아닐까? 그리고 간지의 사탐을 진리의 빛으로 몰아내야 하지 않을까?

새해부터는 어둠의 간지를 몰아내고 생명과 빛 되신 말씀이 우리나라를 다스리게 되기를 기도한다.

수화교실 열린다

기초반 1. 17~6. 26(토) · 중,고급반 1. 18~6.27(주)

에바다부에서는 수화교실을 열어 농아인들과 대화 또는 격들을 돕는 이들을 확장코자 한다.

기초반(606호)은 1월17일(토)~6월26일(토). 매주 토요일 오후2:30~3:30, 중급반(603호)과 고급반(606

호)은 1월18일(주)~6월27일(주) 매주일 오후 1:00~2:00까지 연다.

관심있는 분은 서무국으로 신청바란다.

신년 감사의시

빛이 있을지어다

신동기 권사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엄연한 세월의
경계 속에서

주저함도
해매임도 없이
시간은 영원 속으로
그 묵은 몸을 내주고
한줄기 빛으로 뻗어간다

하늘은
푸른 살 덮어내어
새 하늘로
거듭 피어나고

새해
붉은 빛 토해내며
먼동 틀 무렵
등경 위 높은 곳
빛이 있을지어다

역사는
빛을 비껴 비틀거리며
오늘도
빈 그물 견안고 밤새 통곡하더니
그 피로 씻은 젖은 가슴
깊은 바다를 이루고

눈물 깊은 곳
그물 내릴 때
찬란한 은빛 쏟아지는
늘라운
새벽의 부요함 이어

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이천사년 새 아침
가난한 가슴에
빈 배 걸어놓고
당신을 따라 가오리다.

안식년을 마치고

이제 다시 충성할 때입니다



최승준 장로(10교구)

안식년 감사예배를 드린지가 었 그제 같은데 하나님은 한 해의 종점까지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전적인 아버지 하나님의 지극한 사랑이 오 베풀어주신 풍성한 은혜를 믿고 감사하며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2003년도 안식년은 부족한 저에게는 있을 수 없는 감회의 한해였습니다. 자신으로부터 가정과 교회와 직장까지 내가 머물 수 있었던 곳에서 하나님 은혜로 많은 것을 볼 수 있었고 많은 것들을 들을 수 있었으며 많은 것을 체험할 수 있었던 일과 가장 자유하였고 그 자유 가운데 교회에 대한 책임과 의무를 발견할 수 있었던 것이 저에게는 무엇보다 감사한 일이었습니다. 한 해 동안 이것저것 복음에

유익한 일이라면 해 보고픈 일이 많았지만 내 뜻대로 할 수 없는 능력의 한계를 절감하였습니다.

그러나 매일 한 교회씩 탐방(일곱교회)하는 일과 끝까지 교사의 사명을 다하지 못한 아쉬움과 성경5독을 계획하고 2독으로 만족했던 것은 두고두고 후회할 것 같습니다.

이제 다시 당회로부터 재신임을 받아 2004년도 섬김위원으로 봉사하게 된 것을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맡겨주신 사명을 지혜롭게 감당할 수 있도록 온 교회에 기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님이 주신 소망을 위하여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꾀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빌 3:14) 이 말씀을 좌우명으로 삼아 저에게 지워진 멍에를 메고 십자가를 의지하여 섬기는 중으로 순종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봉준 장로(9교구)

우리의 연수는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시간표에 며칠이 남았는지 나는 모르지만 불타 없어질 세상일에 쉬지도 못하고 달려온 나약한 경주자였음을 지난해 안식년을 맞아 생각해 보았습니다. 헛되고 헛된 것에 금 같은 시간을 보내고 세상일에 쪼들려 육신마저 지친 내 모습을 말씀의 거울로 자세히 보게 되었습니다. 앞만 보며 쉴 새 없이 달려온 지친 두 발을 잠시 쉬게 하며 주위를 둘러보는 동안 주님께서 한 가지 한 가지씩 그동안 바라보지 못하였던 일들을 보여주셨습니다. 말씀을 묵상하며 찬양을 부르고 주님 앞에서 안식하는 것만으로도 이제껏 어렵게 느껴졌던 허물들이 가볍게 느껴지게 되었습니다.

마라톤 경주자에게 주어지는 한잔의 시원한 음료와도 같은 시간들을 보내면서 이제 다시 일어설 때에는 하나님 앞에 더욱 충성해야겠다는 다짐을 하게 되었고 복음 사역과 몸 된 교회를 위해 쉴 줄 모르고 일해야겠다는 생각도 가지게 되었습니다.

어린시절 작은 섬나라 가락도에 살던 시절부터 이렇게 서울교회 장로로 세움 받기까지 붙잡아 주신 주님. 어리석고 몇 번 죽어 마땅한 죄인 중의 죄인을 당회원과 성도들 앞에 세워주시고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라고 위로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주님으로 인하여 용기를 얻으며 더욱 힘을 얻어 남은 삶 동안 몸 된 신 교회를 위해 충성을 다하겠습니다.

순결서약식을 준비하며...

윤성열(청년부)

2004년을 맞이하며 이제 저는 27살이 되었습니다. 결혼을 생각하고 준비해야하는 이 시점에서 저는 순결서약을 결심하였습니다. 아직 결혼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순결서약을 갖는 것이 올바른 선택이라 생각했습니다.

순결서약식은 두 가지 면에서의 순결을 다짐하는 것입니다. 첫째로 '몸의 순결'을 서약합니다. 육신의 몸은 예수님께서 거하시는 성전이라고 성경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거하시는 처소를 깨끗하고 순결하게 지키는 것이야말로 하나님을 믿는 자로써의 마땅히 해야 할 바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시간의 순결서약식은 결혼 전까지만 순결하기를 서약하는 것이 아니라 평생을 살아가며 '하나님 앞에서' 순결하기를 서약하는 것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순결서약식은 '마음의 순결'을 서약합니다. 몸의 순결은 어찌 보면 지키기에 그리 어렵지 않은 항목입니다. 중요한 것은 마음이 순결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겉으로 드러나지 않고 다른 사람을 의심할 때 책망 받을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믿는 자들이 의식해야 할 대상은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순결한 자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눈에 보이지 않는 마음을 순결히 가꾸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마음의 중심을 보시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순결서약식을 하며 저는 몸의 순결뿐 아니라 마음의 순결까지도 다짐하려고 합니다. 평생을 살아가며 순결하기 위해 '하나님 앞에서' 살아간다는 마음을 잊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다른 사람들 눈이 무서워 순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날 구원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나 크기에 그 사랑을 생각하면 순결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2004년 농어촌 100교회결연현황 (다음 주 계속)

Table with 3 columns listing church names and their corresponding partners for the 2004 rural church alliance.

정정

가호동 교회: 김종선(목) - 오형철 - 신동기
신원교회: 류지인(목) - 박정섭 - 오길탁
관천리교회: 박봉덕(목) - 김계근 - 안분선

동정

- List of church members and their roles, including names like 배호성, 안진희, 김명옥, 오병호, etc.

이종윤 목사 방송설교

Table listing broadcast details for Pastor Lee Jong-yun, including TV channels (케이블 CH 42, 위성 CH 162), radio frequencies (HLKY 98.1 MHz, HLKX 106.9 MHz), and internet links.

서울 주간기도

주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 1. 오늘 성찬식 · 공동의회 · 순결서약식이 은혜롭게 진행되도록
2. 병상에 있는 환자들, 출타자, 실직자, 소외된 자, 입시생들을 위하여
3. 새해에는 최상의 선택만 할 수 있도록
4. 나라의 안녕과 번영을 위하여

예배 및 집회

Table showing church service and meeting schedules for various districts like Gangnam, Seongsu, and Yangjae.

교회약도

